

### 이음목회연합 2대 취임감사에배

2대 회장 홍석영 목사



2022년 10월 21일 교단의 중진 목회자들이 창립한 이음목회연합은 '이음'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교회와 학교를, 교회와 교회를, 현재와 미래를 '잇는(Connecting)'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초대회장 신원동성결교회 고신원 목사에 이어 제2대 회장 안다목적성결교회 홍석영 목사가 선출되어 더 힘차고 탄원하게 이끌어 갈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날 취임감사에배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안다목적성결교회에서 8월 17일(토) 오후 2시에 사무총장 이상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최원영

목사의 기도, 부서기 고신원 목사의 성경봉독 후 총회장 김만수 목사가 '주님만 의지하는 이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만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와 교회, 교회와 학교,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주기 위해 여호와만 신뢰하며 섬기며 공동체와 교단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음목회연합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설교했다.

설교 후 회계 김상혁 목사의 헌금기도, 서기 윤호용 목사의 광고,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의 축사와 명예총재 이상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제2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개최

전국 44개 교회서 183명 참여... 십자가교회 5관왕



지난 8월 24일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회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44개 교회 18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시냇가푸른나무교회(신용백 목사)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대회로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사명의 신앙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신용백 담임목사의 비전이 담겨 있다.

이동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대회는 이동부는 모세오경 80문항, 청소년부도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각각 110문항이 출제되었다. 오지선다형, 단답형, 성경인용, 서술식의 분량이 출제되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재립관 강의실에서 진행된 시험은 그

어떤 장면보다 긴장과 떨림의 순간들이었다. 인솔한 목회자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참석한 부모도 시험장 밖에서 두 손을 모아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부 △1등은 십자가교회 조성주 양이 차지했으며, △2등은 감다연(십자가), △3등 김서준(십자가) 군이 차지했다.

청소년부는 △1등 십자가교회 송수향, △2등 십자가교회 정성찬, △3등 복된교회 이세인 학생이 차지했다.

특히 십자가교회는 지난해에 호성적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5관왕을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 이날 신용백 목사는 "다음세대들이 말씀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성결대, 2024 기업분석 경진대회 개최

8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주간 진행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4 기업분석 경진대회'를 8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희망 기업을 분석하며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참가 학생들에게 기업분석 교육, 1:1 컨설팅을 제공해 다각적인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팀은 11월 수원대학교에서 열리는 경기 남부권 대학연합 기업분석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경기 남부권 대학연합 경진대회는 성결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이 공동 참여

하며, 각 대학에서 선발된 2팀씩 총 20팀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룬다. 진성아 성결대 대학일자리개발처장은 "많은 학생이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 성결대 기업분석 경진대회의 교육 순서는 대회 준비를 위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과 온라인·오프라인 컨설팅이 진행되며 10월에는 예선 대회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팀은 추가 컨설팅을 통해 최종 발표 준비를 마치고, 11월 초 본선 대회에서 우승팀을 가린다. 대회의 시상금은 1등 10만원, 2등 8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 서종로 원로장로, 성결대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 수여 교단 및 지역사회 위해 헌신한 공로 인정받아

서울남지방회 신림제일교회 서종로 원로장로가 명예 신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성결대학교는 지난 8월 28일 학술정보관 이팝 국제회의실에서 서종로 원로장로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서종로 원로장로는 1989년 예성 신림제일교회의 장로로 임직한 이후, 예성부총회장, 성결대학교 법인이사 등을 역임하며 성결대학교 복음화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달리다 교장에 인선교회 및 희망장애인선교회 이사장인 서 원로장로는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헌신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안양시장상, 서울시 관악구청장 감사장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특히 성결대학교 법인이사로 재직하며 학술정보관 건립 및 학교 중장기발전 계획 추진을 위한 거액의 기부를 통해

성결대학교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성결대학교 대학원장 한경수 박사의 사회로 김상식 총장의 훈사, 서종로 원로장로의 경력소개 및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 박광일 박사와 사회법인 희망나누리 이사장 윤형영 목사의 축사, 서종로 원로장로의 감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광일 이사장은 "이번 명예신학박사 학위수여식은 오랜 세월 동안 성결대학교와 예성교단 및 지역사회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서종로 원로장로님의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축사했다.

서장로는 감사에서 "부족한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결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성결대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광주지방회, 감찰회별 목회자 가족수련회



광주지방회(회장 박정택 목사)는 감찰회별 무료급원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진행했다.

광주감찰회(감찰장 박종영 목사)에는 지난 8월 12일(월)~14일(수)까지 거제, 부산, 포항 일원에서 2박 3일간 감찰회 목회자 부부수련회 일정을 소화했다. 감찰회 목회자 가족 18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

를 통해서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교역자들 간에 친교를 도모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빛고을감찰회(감찰장 조일구 목사)도 다른 날에 1박 2일 일정으로 여수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광주지방회주재가자 이근민 목사

### "불건전 집단 회피 않고 강력하게 대응" 천명 법교계 이단대책위원회협의회 전체모임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회협의회(회장 성희찬 목사)는 지난 8월 13일 천안장로교회에서 '이단 대처를 위한 연합'을 주제로 전체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제시문, 신론 등 조직신학 각론별 포괄적 적용 지침 사항을 논의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이단·사이비 종교단체 현황을 짚으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본교단 사이버집단대책위원장 한의상 목사를 비롯한 각 교단 이단위원장 한석호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진일교(기독교한국침례회) 유영권(예장합신) 성희찬(예장고신) 황진석(백서대신) 위원장, 차재용(기독교대한감리회)

이단피해예방센터장, 각 교단별 이단위소속 목회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회의는 효율적으로 이단·사이비 종교를 대처하기 위해 '이단 규정 표준 기준안'을 논의해 지난 4월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준안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기준으로 다른 교단의 장정과 헌법, 교리 등을 참고해 만든 조안이다. 다만 교단별 교리가 일부 달라 협의의 내에서 논의 과정 중이다.

이날 회의는 이단·사이비에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정통교회와 교단을 향한 불건전 집단의 도전에 대해 절대 회피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과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 서울중부지방회, 아동부연합성경학교



서울중부지방회(회장 이광현 목사)에서 주최한 아동부연합성경학교가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수양관에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중부지방회에 속한 12교회에서 140여 명의 어린이들과 교사와 교역자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연합성경학교는 "숲으로 떠나는 성경학교-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석주 목사이론이전도협회 어린이부흥강사와 송민우 목사(독일교회)의 말씀 집회를 통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깊이 있게 깨달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의미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수동수영장에서의 물놀이와 풍선달인 박종현 선교사의 공연, 조별성극 발표회는 어린이들에게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즐거운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들 중 송유원(독일교회) 어린이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고, 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며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깊이 있는 신앙 체험과 예배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성경학교를 주관한 이상진 목사이론부 부장은 "지방회 회장님과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지방회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이번 연합성경학교가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지방회 소속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중부지방회는 교회 간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부지방회주재가자 황규정 목사

### 광주지방회, 청년연합회 성령 모임



광주지방회(회장 박정택 목사) 청년연합회는 지난 8월 25일(주일) 오후 4시 샘솟는교회(박정택 목사)에서 성령 모임을 가졌다. 1부에는 샘솟는교회 찬양단인 D 박형준 집사의 찬양과 청년부장 이승훈 목사의 말씀에 이어 지방회장 박정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서 샘솟는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통해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청년들 간에 서먹한 마음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광주지방회 청년모임을 통해서 광주지방회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광주지방회주재가자 이근민 목사

###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수련회 개최

"지난 21년의 축복의 힘으로 앞으로 20년을 더욱 힘차고 멋지게"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이하 웨협·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는 지난 8월 19~21일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열고 웨슬리 정신을 재충전했다.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으며 첫 수련회를 가졌다. 그동안 학술 세미나와 선교대회는 많았지만 회원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수련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는 우리교단을 비롯한 기성, 감리교 등 웨슬리언 교단의 전 총회장, 신학대 총장 등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교단에서는 전 총회장 나세웅 목사, 직전 총회장 조일구 목사, 전 성결대 총장 주삼식 목사 등이 참석했다.

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는 "지난 21년의 축복의 힘으로 앞으로 20년을 더욱

힘차게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달려가는 웨슬리언지도자협의회가 될 줄 믿는다"고 말했다.

본교단 전 총회장 조일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첫날 개회예배는 전 성결대 총장 주삼식 목사의 기도와 사모 중창단의 특송, 감신대 이사장 김상현 목사의 설교에 이어 총부 허성영 목사의 광고, 전 총회장 나세웅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상현 목사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해주는 웨슬리의 후예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